아동학대 발견 시 버려야 할 우리의 편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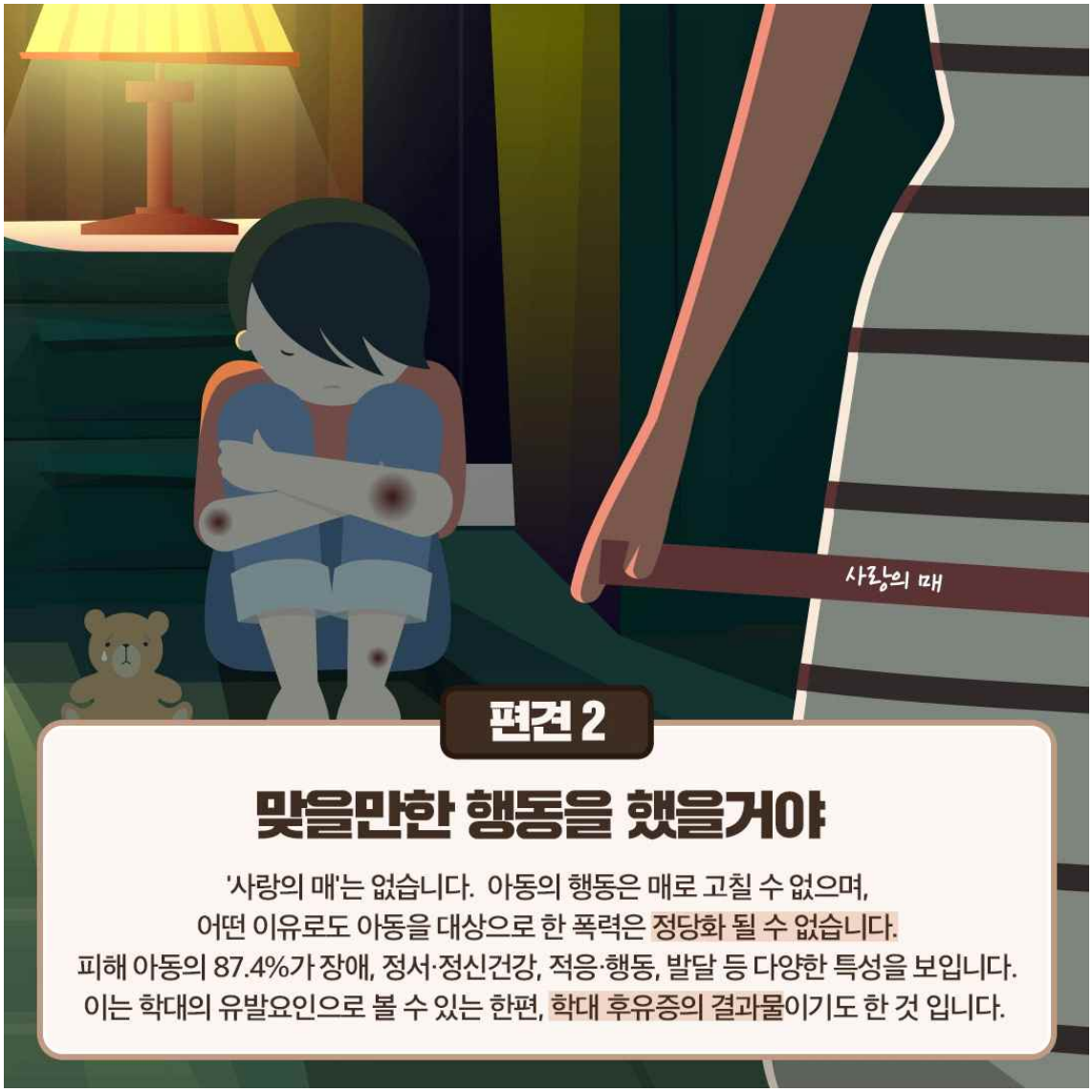
경기북부경찰청
GYEONGGI BUKBU PROVINCIAL POLICE AGENCY



편견 1

설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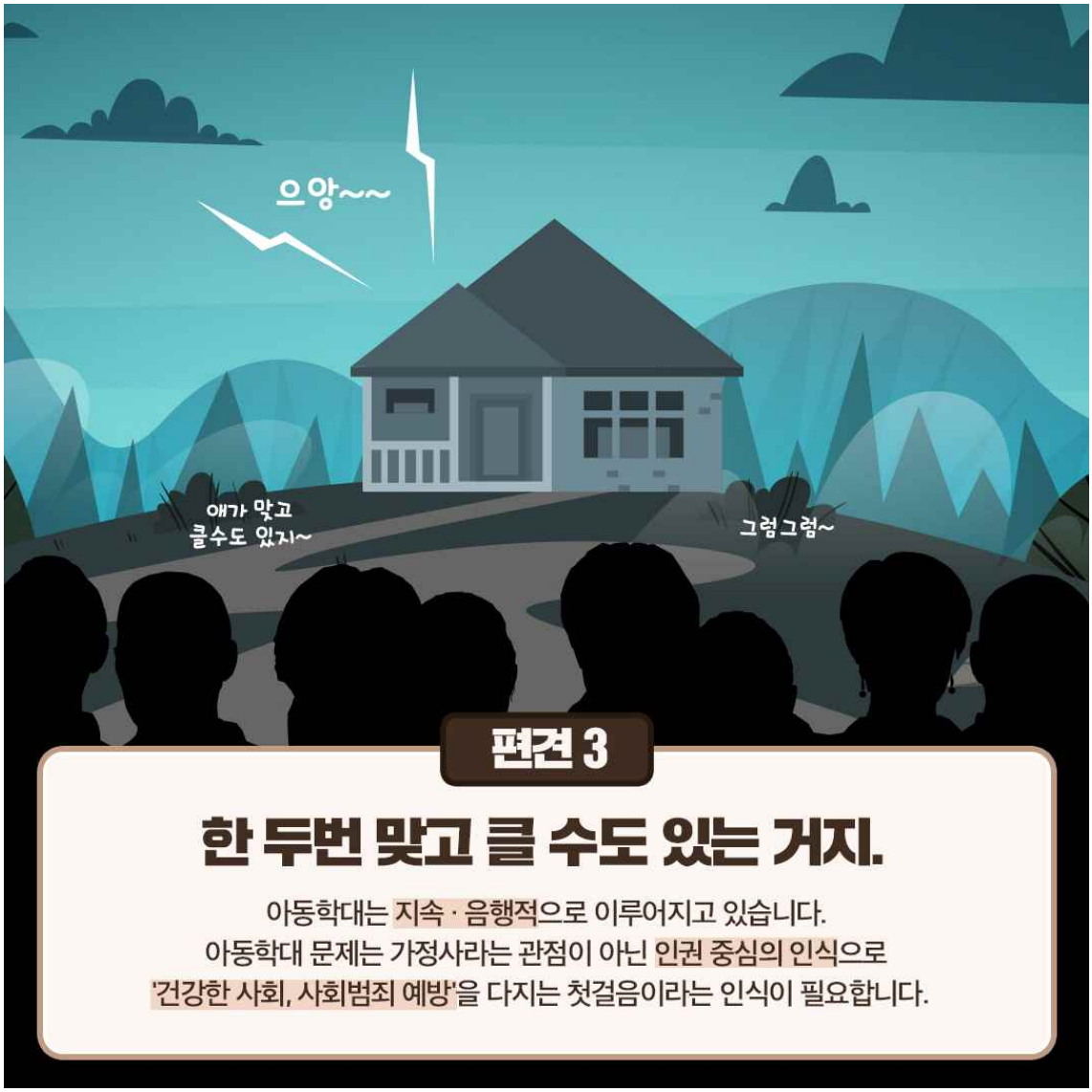
매년 아동학대 행위자의 83% 이상이 부모이며,
특히 방임은 90%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통계에 따르면 '친부모'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는 79.7%에 달합니다.



편견 2

맞을만한 행동을 했을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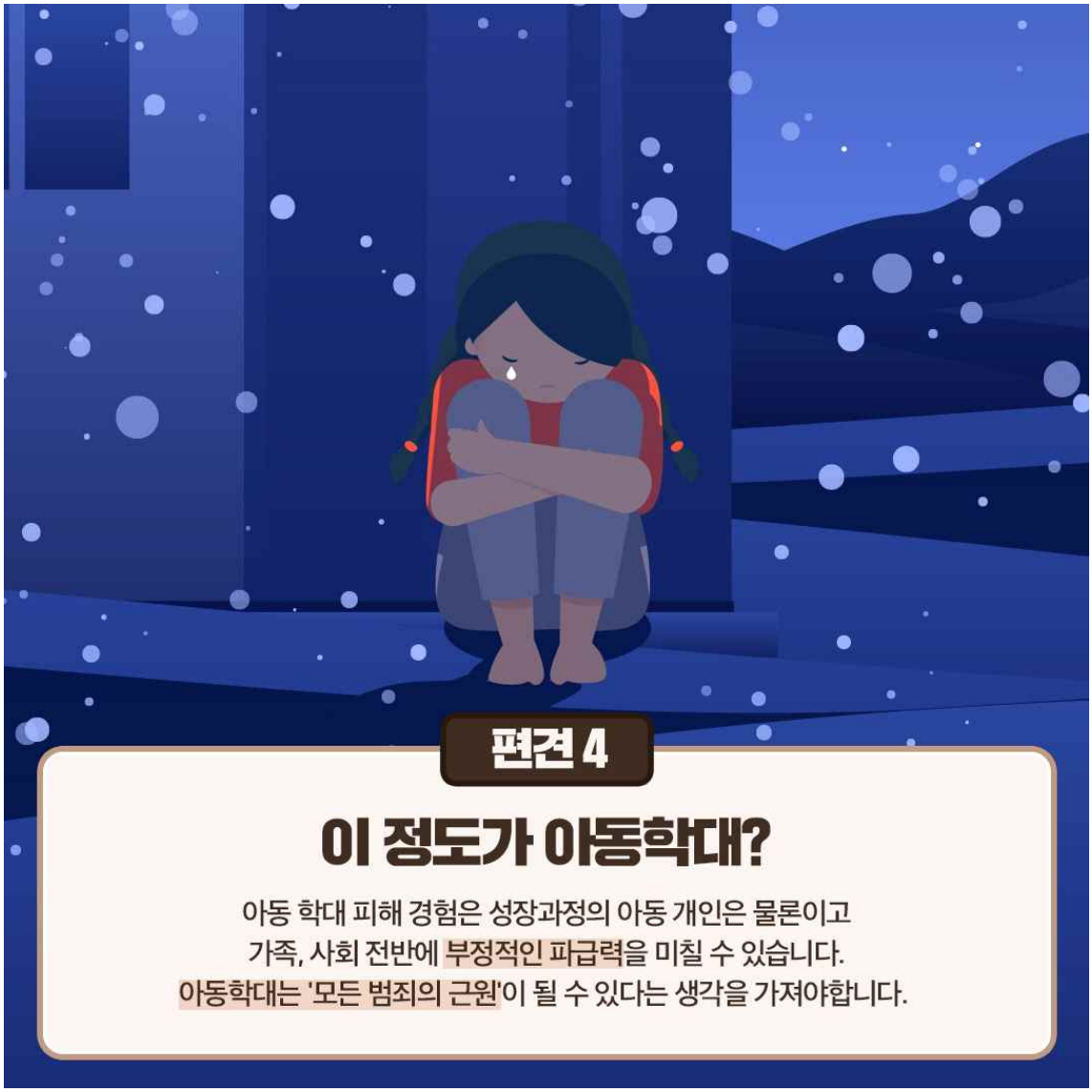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아동의 행동은 매로 고칠 수 없으며,
어떤 이유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피해 아동의 87.4%가 장애, 정서·정신건강, 적응·행동, 발달 등 다양한 특성을 보입니다.
이는 학대의 유발요인으로 볼 수 있는 한편, 학대 후유증의 결과물이기도 한 것 입니다.



편견 3

한 두번 맞고 클 수도 있는 거지.

아동학대는 지속 · 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는 가정사라는 관점이 아닌 인권 중심의 인식으로
'건강한 사회, 사회범죄 예방'을 다지는 첫걸음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편견 4

이 정도가 아동학대?

아동 학대 피해 경험은 성장과정의 아동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모든 범죄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112로 신고해주세요.
아동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피해 사실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아동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시간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북부경찰청
GYEONGGI BUKBU PROVINCIAL POLICE AGENCY